

모자의료센터 진료협력 현황·과제...광주서 열띤 토론

전국모자의료센터협의회 심포지엄
국립대·상급종합병원 등 20여곳 참석
다태임신·MFICU운영 계획 등 발표

전남대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지난 17·18일 이틀간 광주에서 개최한 전남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과 전국 모자의료센터협의회 심포지엄은 의정갈등 이후 전국의 산과 명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과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 뜻 깊은 자리였다.

무엇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과 중증 모자의료센터 운영 등 산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 토론을 펼쳤으며, 필수의료 정책 등 현재의 산과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의 유명 산과 의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의료계와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

모자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병·의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사업이다.

현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장이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윤하 전남대 권역 모자의료센터장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진료협력 시범사업 시행, 통합정책수가 신설, 분만수가 개선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이미 심화된 인프라 붕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면서 "이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진료체계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특히 산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부분도 속도를 내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8일 열린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 심포지엄에서는 모자의료센터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신생아 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경험 공유, 중증 모자의료센터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또 전남 열린 전남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은 다태임신의 관리, 의정 갈등 이후 MFICU(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산후출혈 치료 신기구인 제이다 시스템(JADA system), 중태 발표 등을 다뤘다. 또 전남대병원 분만실의 역사에 대한 특별강연도 있었다.

이처럼 이번 심포지엄의 큰 특징은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 회원 병원과 필수의료 현안, 그리고 학술발표 등으로 꼼꼼하고 다채롭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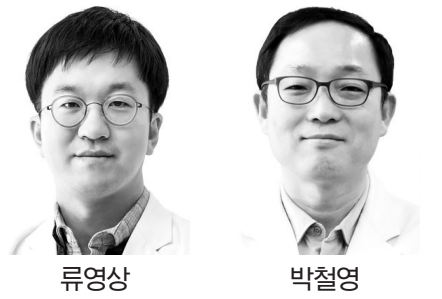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의 산과 위기를 예고한 지난 2021년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인턴·전공의-임상강사-전임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다. 당시 설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산부인과 미래에 대해서 응답자 61%가 '암울하다'고 답했으며, 산부인과 의사의 미래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가장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장과 관련된 산부인과 의사



지난 17일 전남대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전남대병원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보호장치의 부재'가 82.3%로 가장 많았다. 또 '후배들에게 산부인과를 전공하도록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0.3%가 '의향이 없다'고 답해 '의향이 있다' (18.8%) 보다 3배 더 많았다. 다음은 심포지엄 세션별 주요 내용이다.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 심포지엄
▲세션1-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현황, ▲세션2-신생아 의료 관련 정책 발전방향, ▲세션3-모자의료 모자의료센터 및 사업 소개, ▲세션4-모자의료

센터의 역사, ▲세션5-중증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세션6-필수의료 정책의 방향
◇전남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
▲세션1-다태임신의 관리, ▲세션2-의정사태 이후 MFICU 운영계획, ▲세션3-전남대병원 분만실의 역사, ▲세션4-제이다 시스템, ▲세션5-Twin 산모에서 PPRM 2례, 만성 신질환 환자의 임신과 출산.
/글·사진=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 류영상 교수팀 당뇨치료 새 기전 규명 SGLT2억제제, 지방세포 개선

조선대 의학과 류영상(조선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제2형 당뇨병과 무관하게 지방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전문 학술지 'Cardiovascular Diabetology (IF 10.6)'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류영상 교수가 제1저자, 성균관대 박철영(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인 이나보글리플로진(enavogliflozin)의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이나보글리플로진이 체중은 줄이지 않더라도 혈중 렙틴(leptin) 수치를 현저히 낮춰 혈당 조절 능력과 대사 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혈당치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다.

이번 성과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순한 혈당·체중 관리 차원을 넘어 지방세포 기능 조절을 통한 대사 건강 개선이라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SGLT2 억제제의 이로운 대사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막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이다.

류영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앞으로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정서적 안정·치유...전남대병원 '마음센터' 개관

현대해상 사회공헌...도서 등 비치
환자·보호자·지역주민 모두의 공간

전남대병원이 장기간 투병으로 지친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사회공헌 사업인 '마음센터 도서관'을 개관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전남대어린이병원 1층에서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전중 전남대어린이병원장, 윤현주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송은송 어린이병원 진료부장을 비롯해 현대해상 사회공헌파트 김경숙 부장, 박성재 과장, 아르콘(ARCON) 김선아 사무국장, 광주선명학교 문상중 교장, 이상철 교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도서관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과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병원이 단순 치료의 공간을 넘어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보호자들의 고객 의견(VOC·Voice of Customer)에서 출발해 도서관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대해상이 후원, ESG 사회공헌 전문기관인 아르콘이 함께하는 사업인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센터'에 올해 3월 지원했다.

이후 서류심사·실사·면접을 거쳐 5월 최종 선정됐으며, 도면 설계, 가구 및 도서 선정, 시공 과정을 거쳐 이날 개관식을 했다.

도서관에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폭신한 바닥 매트와 책꽂이, 책상 등 아동 친화적인 가구가 배치됐으며, 다양한 장르의 신규도서 약 1000권이 비치됐다.

향후 전담 인력을 통해 도서관을 운영하며 독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단순히 치료만이 아닌 정서적 위안까지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병원이 지역사회의 치유와 나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미래의료혁신 매칭데이' 개최

의료기관·창업기업 개방형 협력

화순전남대병원이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에서 '2025 CNUHH 미래의료혁신 매칭데이'를 열고 의료기관과 창업기업이 손잡는 새로운 개방형 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며,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디지털바이오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K-HOPE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사업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참여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병원 임상의, 특허법인 변리사,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기술 수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임상시험과 실증 테스트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대표와 임직원들도 함께해 병원 인프라와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유진셀랩·테크빌 송해경 전무가 '창업에서 성장까지, 바이오 스타트업의 운명을 가르는 10

Do's&Don'ts'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연 후에는 병원 의료진, 기업지원 전문가와 기업이 직접 마주 앉는 1:1 맞춤형 파트너링 상담과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임상 및 실증 수요를 병원 인프라와 실시간 연결하고, 사업화 파트너십 확보 및 차년도 유망기업 사전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투자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는 앞으로 3년간 총 32억 원(국비 21억 원, 지방비 11억 원)이 투입된다. 병원은 창업기업 발굴과 기술 개발, 임상·인증·시험평가까지 바이오헬스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우리 병원은 차세대 AI-Bio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Experimental trials)를 통해 개발되는 원천기술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사업을 통해 즉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브릿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100주년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